

# 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출처 : 에너지경제연구원



## 중국,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·배출감축방안 확정

- 7월 19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·배출감축사업 회의에서 중국은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·배출감축 통합사업방안, 에너지절약목표 분배방안 및 주요오염물 총 배출량 통제계획을 심의·통과시킴
  -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기술을 보급·사용하는 한편,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.
-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·배출감축을 위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.
  - 가정용 전력·수자원의 차등가격 제시, 열공급량 계량에 따른 요금납부방안 전면추진, 차등 전기요금과 납기후의 납부금액 인상, 에너지절약·저탄소 시범사업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임.

(中國證券報, 2011.7.26)

## 일본, 전력·가스요금 9월에도 인상 예정

- 일본의 전력 및 도시가스 회사는 연료가격을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에 따라 9월에도 요금(표준 가정)을 인상할 예정임.
  - 도쿄전력, 간사이전력의 요금인상은 7개월 지속되었으며, 주부전력과 도쿄가스 등 도시가스 3개사는 6개월 연속 인상했음. 원유와 LNG 가격상승으로 요금

인상이 계속되는 추세임.

- 9월 가격은 올해 4~6월 평균 연료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됨.
  - 전력회사별로 도쿄전력이 6,770엔(약 90엔 상승)으로 인상하며, 간사이전력이 6,600엔(약 40엔 상승), 주부전력이 6,830엔(약 80엔 상승)으로 인상함.
  - 도시가스 가격은 도쿄가스가 약 5,280엔(약 70엔 상승), 오사카가스가 5,840엔(약 75엔 상승), 토호가스가 6,260엔(약 70엔 상승)으로 인상될 전망이다.

(日本經濟新聞, 2011.7.22)

## 스위스, 에너지세 개편 계획

- 스위스 정부는 연료세와 자원소비세를 중심으로 연방 세제를 개편할 예정임.
  - 스위스 Eveline Widmer-Schlumpf 재무부 장관은 차기 입법기간(2011-2015년) 동안 연방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7월 7일 밝히면서, 환경세를 단일소득세와 결합시킬 것이라고 덧붙임.
  - 또한 에너지부문에 적용되는 공공보조금 방식을 개편하여, 세금공제를 삭감하고 직접보조금을 더 많이 활용할 계획임. 특히 직접보조금은 채택된 에너지효율 대책이 효과적임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힘.
- Widmer-Schlumpf 재무부 장관은 2006년 연방회의의 제안대로 연방소득세를 연방환경세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올해 가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.
  - 전력가격에 실제 발전비용을 반영하게 되면 연방정

부는 기존의 많은 세금공제를 폐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.

(EU Energy, 2011.7.29)

### 오사카가스,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실증실험 진행

- 오사카가스는 고객의 열병합발전 및 태양광발전을 하나의 커뮤니티 내에서 집약제어하여, 전력과 열의 공급 및 수요를 조정하는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(SEN)의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음.

- SEN은 IT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전력 및 열을 유통하여 공급을 조정하며, 전력수급조정에 따른 계통전력의 수급균형에 도움이 됨.

- 간사이전력의 원자력발전소가 정지하는 등 전력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, 전력수급조정원으로서 SEN의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음.

- 오사카가스 관내 열병합발전의 출력은 총 1.4GW임.

(日刊工業新聞, 2011.8.8)

### 남아공,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개시

- 남아공 정부는 녹색에너지 프로젝트의 개시를 위해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8월 4일 입찰을 실시함.

- 향후 풍력, 태양광, 소수력발전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 및 바이오매스에서 방출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함.

- 상기 입찰은 5만MW 이상 전력을 추가하여 남아공의 전력공급을 두 배 확충하고, 독립 발전회사들로부터 신규 발전량의 30%를 생산하려는 계획의 일환임.

- 남아공 정부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3,725MW의 전력을 생산하여 사회적, 경제적,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.

- 남아공은 국가 전력시스템의 개편을 위해 향후 20

년 간 1,2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.

- 이 가운데 칼라하리 사막에 향후 최대 규모의 태양열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.

- 남아공은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, 지난 몇 년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. 2008년 1월 전력공급이 4주 정도 중단된 적이 있음.

- 남아공 국영전력회사 Eskom은 향후 5년간 전력공급 부족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. 특히 Eskom이 2011~2012년에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힘.

(AFP, 2011.8.5)